차밭 풍경

와즈카초에 펼쳐진 푸르른 구릉에는 정성껏 가꾸어진 차나무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풍경은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차를 재배왔음을 말해 줍니다. 이 전통적인 차밭이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차나무들은 언덕과 산비탈을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펼쳐져 있고, 밭 곳곳에 세워진 키 높은 기둥 끝 선풍기는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 찬 공기를 흩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랭사'라고 불리는 검은 천이 차나무 위에 덮여 있는데, 이것이 찻잎을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차 농가들은 계절에 따라 차를 따고, 수확하며, 가지를 손질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어 차밭에서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2020 년 현재 와즈카초의 차밭 면적은 약 412ha(헥타르)이며, 연간 약 1,100 톤의 아라차(정제 전 찻잎)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구릉에 펼쳐진 많은 차밭 중에서도 특히 경관이 아름다운 4 곳이 유명한데, 저마다 독특한 풍경으로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시테라 차밭

가장 유명한 찻잎 생산지역은 와즈카초 남서부에 위치한 이시테라입니다. 이곳에서는 푸르게 우거진 차밭 언덕이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교토부에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경관을 보호하고 알리기 위한 경관자산등록제도가 있는데, 이시테라는 그 제도의 제 1 호로 등록되었습니다.

3 월 하순이 되면 이시테라의 차밭 주변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옅은 분홍빛 층을 이루며 경치에 화사함을 더합니다. 차밭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드는 이시테라 지역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은 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첫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차밭은 한랭사로 덮입니다. 여름이 되면 수확 시기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재배되기 때문에 한랭사로 덮인 이랑과 찻잎 수확이 완료된 이랑, 수확을 기다리며 무성하게 자란 찻잎이 있는 이랑 등이 혼재하여 차밭은 마치 패치워크처럼 보입니다. 가을이 되면 밭 사이 작은 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와 덤불이 단풍으로 물들어 차밭에 은은하고 따뜻한 색감이 더해집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 정돈된 이랑이 이어진 언덕은 설경으로 변합니다.

차밭이 내다보이는 'dan dan café'에서는 차밭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맛있는 식사와 차를 테마로 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와즈카 다카하시(和束高橋)'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10~15 분 자동차 및 자전거 전용 주차장 있음.

시라스・에리하라 차밭

시라스(白栖)와 에리하라(撰原) 차밭은 서로 마주보는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 멀리 숲과 산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배에 적합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랑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계절마다 꽃을 피우는 식물과 논이 있어 워킹 투어나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오시는 길 : 이시테라 차밭에서 길을 따라 도보 약 15 분 또는 '시라스구치(白栖口)'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약 18 분 경관을 즐길 때에는 농작업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마쓰카 차밭

완만하고 아름다운 구릉에 자리한 가마쓰카 차밭은 와즈카초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와즈카초의 관광안내소, 파출소, 우체국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이나 차 재배의 연중 작업 과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사카 신노 묘, 덴쿠 카페, 쇼호지 절 등 전망 명소에서도 멀리 가마쓰카 차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차밭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신 경우는 '나카와즈카(中和束)'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약 8 분 와즈카초 관광안내소에 자동차와 자전거 전용 주차장 있음.